

자꾸 ‘남 탓’하는 아이? “걱정마세요”

가치육아 이럴 땐

만 4~5세 시기 자기 주도성 ↑ 발달단계 이해하며 ‘설명’을

“엄마 아빠 때문이야.” 아이의 짝은 이 말에 부모는 걱정이 듭니다. 뭐든 맘대로 안 될 때마다 남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 같아서인데요. 이럴 때 아이의 발달 단계를 알고 있다면 괜한 걱정보다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주도성은 살리면서 바른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일곱 살 아이입니다. 아이가 자꾸 “~ 때문이야”라며 ‘남 탓’을 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 아 네. 아이가 일곱 살이군요. 아이가 “누구 때문이야”라고 하면 남에게 잘못을 넘기는 것 같아 걱정이 되실 것도 같은데요. 이는 만 4~5세, 취학 전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모습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 말한 발달 단계와도 딱 맞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커지면서 뭐든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죠. 차를 탈 때도 꼭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먹을 때도 자기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하기도 합니다.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먹어 놓고 동생이 먹었다고 하거나 본인이 실수해서 물을 쏟았는데 동생이 했다고 하기도 하죠. 사실 그런 거짓말이라고보다 일종의 ‘포장’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에 서고 싶고,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올라오는 말이지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문이야”, “동생 때문이야”처럼 ‘남 탓’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를



자기 주도성이 커지는 만 4~5세에는 “~ 때문이야”라며 남을 탓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런 발달 단계로, 이를 알고 있다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이려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 ‘자기 주도성’과 ‘죄책감’ = 아이의 ‘~ 때문이야’라는 말에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 선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엄마와 놀이를 하다 갑자기 “엄마 때문이야”라고 하는 아이. 뭔가 어긋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엄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땐 “무엇 때문인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우리 가치(*아이 이름)한테 엄마가 어떻게 했더라”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아이도 ‘~ 때문이야’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이 스스로도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요. 엄마가 한 톤 내리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배움’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기가 앞장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혼내거나 바로 못하게 하면 그 반대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차에 타려는데 앞자리에만 앉겠다는 아이의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때 아빠가 “위험해! 빨리 뒤로 가”라며 혼내거나 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는 자신을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안 되는구나’라며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가치야, 아빠 옆에 앉고 싶어?”라는 말이지요. 그러곤 “왜 앞에 앉고 싶은 거야?”처럼 이유를 물어보세요. 아이 스스로도 본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얘기할 거예요.

“아빠 옆에 앉으면 운전하는 것 같아”라거나 “뒤에 앉으면 앞이 안 보여”처럼 말이에요. 아이의 말을 들은 아빠는 “아 그래. 그래서 앞에 앉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말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 가치야, 네가 앞에 앉으면 아빠가 불안해서 운전을 잘할 수 없어. 갑자기 다른 차에 부딪히면 가치가 크게 다칠 수 있고. 그래서 네가 좀

더 클 때까지 뒤에 앉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아이도 더이상 우기진 않을 겁니다.

▶ 거짓말은 절대 안 돼? “발달단계 이해를”만 4~5세 아이들은 ‘거짓말’도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혼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나이 아이들의 거짓말이라는 게 정말 나쁜 행동이거나 누군가를 해하는 경우는 없습디.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물을 쏟아 놓고 동생이 했다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동생이 물을 쏟았다는 거지? 지금 엄마가 잘 들은 거지?” 이렇게만 말해도 아이는 속으로 느끼는 게 있어 쭈뼛쭈뼛할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에게 ‘다우엔 똑바로 말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도 생길 겁니다. 말이 아닌 몸으로 배우게 되는 거지요.

상담-오명녀 센터장, 취재-정리-김지는 기자 >> 더 자세한 내용과 영상은 한리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거대한 자유

박재범 감독의 ‘엄마의 땅: 그리사와 숲의 주인’은 툰드라에 사는 소녀 그리사의 이야기를 그린 극장용 장편 스토모션 애니메이션이다. 무려 45년 만에 선보인 스토모션 기법의 이 영화는 자연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소녀의 고군분투를 담고 있다. 태어난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닥치는 외부의 위협과 그 위협을 극복하는 신비로운 모험을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의 메시지는 작품의 만듦새와 꼭 닮았다. 전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제작되는 수작업 방식인 스토모션은 긴 시간만큼의 정성이 필요한, 만든 이의 온기가 캐릭터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될 수 밖에 없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영화 ‘엄마의 땅: 그리사와 숲의 주인’.

다 눈길을 끄는 건 은둔자인 주인공 카야에게 허락된 유일한 낙원인 습지의 풍경들이다. 가정 폭력과 가난으로 어려서부터 홀로 성장해야 했던 여성 카야를 유일하게 품어주었던 자연과 그 자연과 어울리지며 스스로의 재능과 삶을 찾아냈던 한 여성의 이야기. 오히려 이 영화에서 카야의 로맨스는 그녀를 스쳐간 두 남자가 아니라 늘 그녀를 품어 안았던 자연이 대상인 것처럼 느껴진다.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물의 울음을 만질 수 있으며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연과 가까이에서 오래 함께 엮기 때문일 것이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한 인간을 키우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자연 안에서 비롯됨을 이야기하는 생태주의적 영화다.

자연주의 시인인 메리 올리버의 ‘블랙 워터 숲에서’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세 가지 할 수 있어야만 하지’라고 썼다. 그 세가지는 ‘유한한 생명을 사랑하기/자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것을 끌어안기/그리고 놓아줄 때가 되면 놓아주기’이다. ‘엄마의 땅: 그리사와 숲의 주인’과 ‘가재가 노래하는 곳’의 주인공들은 그 거대한 자유를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엄마의 땅: 그리사와 숲의 주인’은 스토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좁은 영토 안에서 미지의 땅인 툰드라로 확장한 시야 그리고 그보다 멀리를 내다보는 인간과 자연의 유대라는 고전적 인 교감으로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텔리아 오언스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습지에 살던 한 여성의 일생을 그린 영화다. 범죄 미스테리와 로맨스가 어우러진 복합 장르의 영화이지만 무엇보다



진 명 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가치 육아 - 이럴 땐 한리일보의 ‘가치 육아’는 같이 묻고 함께 고민하며 ‘육아의 가치’를 더하는 코너입니다.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 오명녀 센터장이 ‘육아 멘토’가 돼 도내 부모들의 영유아 양육 고민과 마주합니다.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고민이 있다면 한리일보 ‘가치 육아’ 담당자 이메일(jieun@halla.com)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IP55 방진방수인증

※ 농협중앙회 자체계약업체 ※ 조달청 상품 등록업체

특허 제 10-2078975호 특허 제 10-2182942호 특허 제 10-2451228호

항토기업 (주)팜그린텍

2023년 FTA 보조사업 품목

<p>시설후호스 태풍피해 대비 제품</p> <p>환풍기(800W)</p> <p>환풍기 기능을 통해 비하수소내 내압을 높여 태풍으로부터 하우스 지지 및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강화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p>2023년 FTA 보조사업 품목</p>	<p>결상에 대비한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p> <p>태풍 또는 기타 사유로 전원 정전(결상)시 자동개폐기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하여 고온피해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제 10-2196685호 • 정전(결상)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변환 고온피해 예방 <p>2023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품목</p>	<p>하우스지킴이</p> <p>고온,저온 설정 범위 초과시 휴대용 알람기능 자동개폐기 전원자동변환 장치와 연동시 상변환 알람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5인까지 휴대용 알람등록 가능
<p>공기교반기(60W, 130W)</p> <p>교반기(60W) 교반기(130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제 10-2078975호 • 바람관 도출구로 인해 공기유출을 사리저대 최소화(특허) 	<p>송풍팬(60W, 130W)</p> <p>송풍팬(60W) 송풍팬(130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아프 재질을 고품급가 있어 안정적이고 깔끔한 송풍팬 시공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p>상분리 제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인 상분리 제어 가능 • 자동,수동 모드 • 온도,시간 설정에 따른 제어 가능 	<p>모터(60W, 130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제 10-2078975호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신입사원 모집

제품 조립 및 현장 설치작업 (워크넷 채용모집 참고)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